36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 ~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저명한 프랑스의 현대 조각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이 시각적인 예술이라는 통념을 거스른다. '생각하는 사람'은 작가가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면이 거칠며 시각적으로 완벽한 실루엣을 보여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한 감상자는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

시각적인 조각 작품을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 시사한다. 표면의 질감에 반응하는 촉각적 경험은 눈과 손, 코와 귀 등이 총체적으로 얽혀 있는 우리의 '몸'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 경향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몸(corps)의 철학'을 생각나게 한다. 메를로퐁티는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몸에 대해 '시각적 광경을 살아 있게 유지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내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몸에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그는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사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말하는 몸은 그저 물리적·화학적·생리적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메를로퐁티는 몸의 경험을 '현상'과 관련짓는다. 그에게 현상은 객관과 주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방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부엌에서 '쨍그랑' 소리가 들렸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는 이 사건을 '쨍그랑' 소리와 그 소리가 난 원인에 ⓒ 주목해 어떤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소리를 지각하는 수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이 현상이 된다고 본다. 접시가 떨어진 것이 원인이 되어 아무리 큰 '쨍그랑' 소리가 났더라도 그 진동을 소리로 지각하는 수용자가 없다면 소리라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소리라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인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그런데 현상에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는 현상의 발생은 곧 '의미의 탄생'이라고 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메를로퐁티는 독일의 철학자 후설의 '지향성' 개념을 활용한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은 '항상 무엇에로 향하여' 있다. 메를로퐁티는 이러한 지향성 개념을 ⓓ 수용하여 지향성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과 의미의 토대라고 본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읽어낸다면 그것은 그 대상과 사건에 대한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지각'이라고 부른다. 지각은 단순히 감각 기관이나 두뇌의 활동이 아닌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다. 가령, 모니터를 보고 있다고 하자. 우리는 항상 어느 하나의 시공간적인 점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나의 조망에는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다. 내가 실제로 보는 것은 모니터의 정면이다. 그런데 메를로퐁티는 이때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때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 또한 순수 지성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이라고 본다. 그는 지각과 같은 활동을 통해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주체를 '세계에의 존재(être au monde)'라고 부른다. 우리는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지각 활동을 통해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場)은 순수한 객관적 세계도, 순수한 주관적 세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대상과 주체가 서로 만나 관계함으로써 지각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이다. 지각이 일어나는 장을 메를로퐁티는 '현상적 장'이라고 부른다. 현상적 장에서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지각 활동은 사유보다 앞서는 몸의 활동이며, 그 활동의 순간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메를로퐁티는,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여긴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한다.

메를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데는 몸보다 인간의 추상적 정신 활동, 즉 지성을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서양 철학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몸을 ⓔ 폄하하고 지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는데, 메를로퐁티는 그에 반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지성 또한 광범위한 몸의 활동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은 서양의 지적 전통과 대립하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게 몸은 세계를 지각하는 주체이며 또한 인간 존재의 실존적 표현이다. 몸을 중시한 로댕의 작품은 이러한 메를로퐁티의 철학을 떠올리게 한다. 로댕은 조각을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작품은 그저 시각적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몸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작품은 관람객과 밀착된 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은 몸과 분리되어, 작품과 몸이 밀착된 관계를 맺기 쉽지 않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몸이 주체가 되는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연계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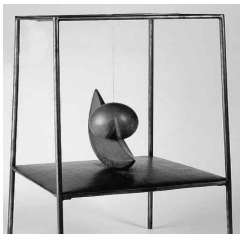
① 특정 작품이 창작된 계기를 소개하며 철학이 예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② 특정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며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특정 예술 갈래의 특징을 제시하며 그 갈래와 연관된 여러 철학자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다.
④ 특정 예술 갈래의 예술사적 의미를 언급하며 철학적 관점에서 그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⑤ 특정 작품에 활용된 철학적 제재의 특성을 밝히며 그 제재가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어 온 양상을 규명하고 있다.

2. 윗글의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지각의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니다.
② '몸'은 인간의 모든 경험이 비롯되는 근원이다.
③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만든다.
④ '몸'은 다양한 감각의 소통과 통일을 이루는 작용의 주체이다.
⑤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과 달리 '지성'보다 '몸'을 더 중시해야 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자코메티, 'suspended ball'

이 작품은 두 개의 돌조각이 불안정하게 포개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초승달 모양의 비스듬하게 누운 돌 위에 홈이 파인 공 모양의 돌이 배치되어 아래에 있는 돌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는, 관람객에게 금방이라도 굴러 떨어질 듯한 위태로운 느낌을 자아낸다. 이와 같은 느낌은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시각이 아닌 '몸'을 겨냥해 이 작품을 창작했음을 나타낸다.

① 아래에 위치한 돌조각이 관람객에게 '초승달과 닮은 돌'이라는 의미로 지각된 순간은 작품이 '현상'이 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두 개의 돌조각이 포개져 있는 것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는 '현상적 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③ 작품이 관람객에게 위태로움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지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겠군.
④ 관람객이 위쪽에 있는 돌에서 친구들과 공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면 관람객의 '몸'에 친구들과의 공놀이 체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⑤ 관람객이 아래쪽 돌의 가려져 있는 부분을 지각했더라도 그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 윗글의 메를로퐁티의 관점에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와 B는 ○○밴드의 공연장에 함께 갔다. A는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해 공연장에서 그의 베이스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공연이 끝난 후 A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도 좋았지만 베이스 연주가 매우 훌륭했다고 하자, B는 베이스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A가 그 까닭을 묻자, B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 소리에 빠져 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① A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지각되었다.
② B와 달리 A는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 활동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
③ B와 달리 A의 '몸'은 가수의 노랫소리라는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하지 않았다.
④ A와 달리 B에게는 베이스 연주 소리가 공연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었다.
⑤ A와 달리 B는 의식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 베이스 연주 소리를 못 들었다.

5.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각적 작품에 몸이 반응해 관계 맺음이 가능하려면 작품과 몸이 분리되어야 한다.
②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은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어렵게 만든다.
④ 작품에 대해 몸이 반응해 관계를 맺으려면 '지각'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사유는 작품과 몸의 관계 맺음을 촉진해 몸과 작품의 관계를 밀착시킨다.

6.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② ⓑ: 어떤 것을 미리 간접적으로 표현해 줌.
③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④ ⓓ: 옳다고 인정함.
⑤ ⓔ: 가치를 깎아내림.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는 병원에 동등하게 살아남을 기회를 가진 2명의 환자가 동시에 실려 왔다. 한 사람은 출산을 앞둔 여성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다. 치료 의무가 있는 담당 의사는 인공호흡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 한 사람은 치료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복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행위자가 하나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무 충돌이라 한다.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 의무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작위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로 구분된다.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를 말하며, 부작위는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런 신체적 힘을 투입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한 것을 말한다. 가령 위의 응급 상황에서 담당 의사가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일어났다면 의사는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의무가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띨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충돌 형식들이 모두 의무 충돌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 형법학자들은 ㉠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견해에 따라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고,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위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 피하려 했는데, 좌측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급히 핸들을 우측으로 ⓑ 꺾어 건물 일부를 파손하는 행위는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있다.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면 벌하지 않는다. 이를 의무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부작위 의무의 충돌 상황에서 핸들을 꺾는 작위에 의해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의무 충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이다.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모두 긴급 상황에서 한쪽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한쪽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의무 충돌 자체가 긴급 피난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의무 충돌과 긴급 피난은 의무의 범위를 작위 의무로 한정하면 그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반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즉 앞선 사례에서 운전자는 핸들을 우측으로 꺾지 않고 좌측으로 꺾어 자신의 법익을 희생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담당 의사에게는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행위자가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행위자가 사건이 벌어질 것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의무 충돌은 대개의 경우 작위 의무 간의 충돌을 ⓒ 뜻한다.

의무 충돌을 작위 의무 간의 충돌로 한정한다면 두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충돌하는 의무 사이에 가치의 경중이 있는 경우와 서로 동등한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가치가 낮은 의무를 희생하고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형법학의 일반적 견해이다. 왜냐하면 복수의 의무 중 가치가 높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와 위법성은 성립하지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견해로 ⓓ 나눌 수 있다.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를 ⓔ 일러 위법성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의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다면 그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행위자의 양심에 따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만약 위법하다면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의 행위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동등한 가치의 의무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이 있지만 다만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책임 조각설이라 한다. 이에 따르면 동등한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는 위법성이 성립하지만 의무 충돌에서는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면책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위자가 의무 충돌 상황을 유발한 것이 아닐 때라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② 의무 충돌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의무 충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④ 의무 충돌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가 위법 행위를 하여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
⑤ 위법성 조각설은 만약 의무 충돌이 성립한다면 의무 충돌 상황에서의 의무 위반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8.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의무 충돌은 법적 의무의 충돌이어야 하는데, 부작위 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③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의무만이라도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④ 부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동시에 있을 때 행위자가 두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⑤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이 있다면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9. 윗글과 <보기 1>을 근거로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1 >

행위자는 더 높은 가치 혹은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때 생명과 생명 사이의 법익 충돌이 있는 경우 생명의 수의 많고 적음이나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보다 더 고귀하다고 하여 생명 가치의 경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 보 기 2 >

a. 담당 의사가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b. 담당 의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남편에게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 형법학자들이 있겠군.

c. 담당 의사가 출산을 앞둔 여성과 그녀의 남편의 생명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설 입장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겠군.

① a ② c ③ a, b
④ b, c ⑤ a, b, c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선로에서 한 량의 빈 객차가 역으로 돌진하고 있다. 역에는 승객을 태운 객차가 정차하고 있어서 만약 이대로 충돌한다면 다수의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지한 선로 관리자가 돌진하는 객차의 선로를 변경하려 했더니 그곳에는 이미 한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선로 관리자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로를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의 노동자는 선로 관리자가 예견한 대로 피해를 입었다.

① 선로 관리자는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두 의무 사이에서 어느 한 의무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③ 역에 정차한 객차 승객들의 법익과 선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법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충돌로 볼 수 있다.
⑤ 위난에 처한 승객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과 관련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므로 긴급 피난 인정 여부를 살필 수 있다.

11. ⓐ ~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이곳에서 얌전히 몸을 피하고 있어라.
② ⓑ: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했다.
③ ⓒ: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되면 좋겠다.
④ ⓓ: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으면 한다.
⑤ ⓔ: 사람을 일러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 한다.

[12 ~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물들은 체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전략들을 진화시켜 왔는데, 삼투조절은 그 중 하나이다. **삼투조절**이란 생물이 체액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육상동물과 달리 어류는 물이라는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물과 체내의 농도 차이에 의한 삼투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삼투현상이란 농도가 다른 두 용액 사이에 반투과성 막을 설치하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척추가 있는 대부분의 어류는 물속에서 삼투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자신의 체액 농도를 유지할 수 없어 생존하기 힘들다. 따라서 삼투조절을 통해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해야 한다.

담수어와 해수어는 외부 환경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삼투조절 방식은 서로 반대이다. 담수어의 체액 농도는 담수보다 높고, 해수어의 체액 농도는 해수보다 낮다. 이들 어류의 표피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의 역할을 하므로, 삼투조절을 하지 않으면 담수어의 체내에는 외부로부터 수분이 과도하게 유입된다. 반면, 해수어에는 과도한 탈수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삼투조절을 해야 한다.

해수어는 최대한 많은 양의 해수를 마신 후 장에서 물만 흡수하고 염류를 배출함으로써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체내에 수분을 최대한 많이 축적하기 위해 배출하는 오줌 양은 흡수한 수분의 약 10% 정도로 매우 적다. 오줌의 농도도 체액 농도보다 더 높을 정도로 매우 짙다. 해수어의 신장에서는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줌 생성 과정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물고기의 아가미에는 염류를 흡수하거나 배출하는 세포가 있다. 이러한 염류세포에 있는 작은 통로를 열어 체내에 유입된 염류를 활발히 배출함으로써 해수어는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삼투조절을 할 때는 에너지가 소모된다. 해수어는 삼투조절을 위해 휴식기 에너지 소모량의 5% 이상을 사용한다. 그런데 에너지 소모량은 체액 농도와 주위 환경과의 차이, 표피 세포막의 수분 투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에서 태어난 연어는 바다로 내려가면 해수어와 같은 방법으로 삼투조절을 해서 수분을 최대한 체내에 저장하고 염류를 배출한다. 그러나 산란기에 다시 모천으로 회귀하게 되면 이와는 반대의 방법으로 삼투조절을 한다. 따라서 연어는 바다에서는 수분 손실로 인한 체형 수축이 일어나지 않으며, 강에서는 수분 유입으로 인해 풍선처럼 몸이 불어나는 일도 없다. 연어와 같이 물이라는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어류에게 있어서 삼투조절은 주위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용이다.

* 용매 : 용액을 구성하는 원래의 액체.

12.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해수의 농도는 해수어의 체액 농도보다 높다.
② 대부분의 해수어에서 표피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의 역할을 한다.
③ 삼투가 일어나면 용매는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④ 삼투조절은 체액의 농도를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현상이다.
⑤ 환경 변화에 따라 삼투조절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달라질 수 있다.

13. **삼투조절**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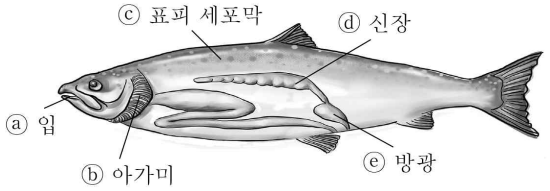
ㄱ. 국이 싱거워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 먹었다.
ㄴ. 더운 여름날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ㄷ.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린 운동선수가 물을 마셨다.
ㄹ. 물을 많이 마시고 잤더니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오줌 양이 많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 ~ ⓔ에 대해 추론했을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강으로 회귀한 연어]



① ⓐ로 체액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많이 들이마시려 하겠군.
② ⓑ에서는 염류 이동 통로가 닫히면서 흡수된 염류의 누출을 최소화하겠군.
③ ⓒ를 통해 외부의 수분이 체내로 유입되는 현상이 일어나겠군.
④ ⓓ에서는 수분을 재흡수하는 작용이 바다에서보다 활발하지 않겠군.
⑤ ⓔ에서 배출되는 오줌의 양은 바다에서보다 더 많겠군.

빠.른.정.답.

2	3	5	5	2
4	3	4	3	2
5	4	5	1	

[1～6] (인문예술) 박영욱, '메를로퐁티와 로댕'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예술사적 의의와 관련 있는 메를로퐁티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감상자로 하여금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다. 시각적인 조각 작품을 대한 감상자가 거친 표면에 반응한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의 의의는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메를로퐁티는 몸에 주체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는 세계의 의미는 그 속에 뿌리박고 사는 주체인 몸에 의해서만 길어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몸의 경험을 '현상'이라고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현상'은 우리가 흔히 실재하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객관과 수용자인 주관이 결합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다. 현상은 주체 없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현상이다. 그에게 현상의 발생은 곧 '의미의 탄생'이다. 이는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이 주체의 지향성에 따라 다른 현상, 즉 다른 의미로 지각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메를로퐁티는 지각을 몸의 총체적인 활동으로 세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현상적 장'인데, 현상적 장에서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메를로퐁티는 지각하는 주체는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은 세계를 주체가 사유를 통해 이념적으로 구성한다고 보는 주지주의 철학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메를로퐁티가 몸을 근원적인 것으로 내세운 데는 지성을 철학의 궁극적인 가치로 내세웠던 서양 철학의 전통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다.

1. [출제의도] 글의 논지가 전개된 방식을 이해한다.

1문단에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청동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표면이 거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표면의 거친 질감 자체를 경험하게 해 준다는 것은 조각이 오직 '눈'을 위한 예술이 아닌 '몸'을 위한 예술로 바뀌었음을 나타낸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조각을 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의의는 메를로퐁티의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는 메를로퐁티 철학의 주요 개념인 '몸', '현상', '지각', '세계에의 존재', '현상적 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 작품의 의의를 제시하며 그와 관련 있는 철학의 주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창작된 계기를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조각의 특징이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조각과 연관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④ 철학적 관점에서 조각의 예술사적 의미가 변화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 않다. 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에 활용된 철학적 제재가 여러 예술 작품에 활용되어 온 양상을 밝히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견해를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메를로퐁티는 지각하는 주체가 세계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세계가 주체의 지각에 의해 창조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체인 몸은 세계 속에 존재하며, 지각으로 세계에 참여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한다. 따라서 주체의 '지각'이 세계를 창조해서 존재하게 만든다는 것은 메를로퐁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메를로퐁티는 현상은 주체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말한다. 지각하는 주체가 없다면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지각의 주체가 없는 소리는 현상이 아닌 것이다. ② 메를로퐁티는 모든 경험은 인간의 몸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④ 메를로퐁티는 다양한 감각이 소통되고 통일되는 것이 몸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⑤ 근대 서양 철학의 지적 전통에서는 지성을 중시하고 몸을 폄하한다. 그러나 메를로퐁티는 몸을 주체로 내세워 지성보다 몸을 중시한다.

3.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의 자코메티의 작품은 두 개의 돌조각이 불안정하게 포개져 있는 작품이다. 이에 따라 위에 있는 돌조각에 의해 아래에 있는 돌조각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 메를로퐁티는 드러난 부분과 감추어진 부분이 있을 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께 지각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래 돌조각에서 위의 돌조각에 의해 가려져 있는 부분도 지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각이 이루어지면 돌조각은 주체가 참여한 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주체와 함께 세계에 존재한다. 세계는 지각하는 주체나 그 대상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이루어졌을 때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지각하는 주체가 참여한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의미가 탄생하는 순간은 곧 현상이 발생한 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조각이 '초승달과 닮은 돌'이라는 의미로 지각이 된 순간은 곧 작품이 현상이 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메를로퐁티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장은 '현상적 장'이며,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활동을 통해 '세계에의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지각은 몸이 주체가 되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품이 관람객에게 위태로움을 자아내는 대상으로 지각이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중력에 대한 몸의 체험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지각은 몸에 축적되어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놀이를 했던 추억을 떠올렸다면 관람객의 '몸'에 친구들과의 공놀이 체험이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A는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의 연주를 좋아해 그의 베이스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은 A가 베이스 연주 소리에 대한 '지향성'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B는 공연에서 베이스 연주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B는 가수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베이스 연주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다. 즉 B는 베이스 연주 소리를 지향하지 않아 베이스 연주 소리를 못 들은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수의 노랫소리에 대한 A와 B의 '지향성'에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에게 가수의 노랫소리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현상'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②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 활동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는 것은 지성에 의존해 베이스 연주 소리를 즐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메를로퐁티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A는 가수의 노랫소리가 좋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A가 가수의 노랫소리를 지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의 몸이 가수의 노랫소리라는 현상을 지각하는 주체로 기능했음을 나타낸다. ④ 베이스 연주 소리는 공연장에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B에게도 베이스 연주 소리는 공연장에 실재하는 객관적 대상이다.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전제는 어떤 판단이나 결론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토대가 되는 명제나 사실을 의미한다. ㉠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함을 통해 알 수 있다. 작품에 대한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몸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는 작품, 즉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작품은 몸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작품과 몸이 분리되지 않아야 작품에 몸이 반응해 관계 맺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로 적절하지 않다. ③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은 몸의 총체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몸의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각적 감각 기관의 활동이 작품과 밀착된 관계를 맺기 위한 몸의 구체적인 반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의 전제가 될 수 없다. ④ ㉠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감상하게 되어 몸의 총체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작품은 몸과 분리된다는 것이다. 지각 활동이 사유보다 앞서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을 논리적으로 성립하게 하는 토대가 되지 못한다. 즉 ㉠은 몸의 총체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의 진술은 시각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⑤ 세계를 이념적으로 구성하는 주체의 사유를 중시하는 것은 주지주의 철학이다. ㉠은 주지주의 철학과 대립적 입장에 있는 메를로퐁티 철학의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다.

6.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옳다고 인정함.'은 '수긍'의 사전적 의미이다. '수용'은 '받아들임.'을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수용'의 사전적 의미를 '옳다고 인정함.'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11] (사회) 김준혁, '정당화적 의무 충돌과 면책적 의무 충돌'

의무 충돌에서 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며, 행위자는 의무 충돌 상황을 야기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 의무는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무 충돌 상황은 부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 작위 의무 대 작위 의무의 충돌 형식을 띨 수 있다. 그러나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 상황은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 한편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의무 충돌이 아니라 긴급 피난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왜냐하면 작위 의무 대 부작위 의무의 충돌은 긴급 피난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 피난은 위난을 제삼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함으로써 법익 충돌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의무 충돌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다. 또한 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지는 긴급 피난과 달리 의무 충돌은 부작위에 의해 법익 침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의무 충돌은 긴급 피난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을 이해한다.

운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건물을 훼손한 행위는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이다. 1문단에서 작위란 행위자가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변경을 가한 경우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의 진로를 변경하여 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

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추론한다.

2문단에서는 대다수의 형법학자들은 부작위 의무 간의 충돌은 의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왜냐하면 부작위 의무란 하지 말아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행위자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음으로써 두 부작위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9.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담당 의사가 만약 누구에게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위법성 조각설과 책임 조각설 모두 그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담당 의사가 양심에 따라 어느 한 환자를 선택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면 위법성 조각설에서는 작위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 행위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법성 조각설은 어느 하나라도 의무를 이행한 자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10.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선로 관리자는 자기 스스로 위난을 감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은 적절한 진술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의무 충돌의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의무 충돌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는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는 '원치 않은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①은 '몸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어 드러나지 않도록 하다.'의 뜻이다. ⓑ는 '방향을 바꾸어 돌리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②는 '생각이나 기운 따위를 제대로 펴지 못하게 억누르다.'의 뜻이다. ⓒ는 '어떤 의미를 가지다.'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반면 ③은 '무엇을 할 마음을 먹다.'의 뜻이다. ⓓ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의 뜻이다. 반면 ④는 '음식 따위를 함께 먹거나 갈라 먹다.'의 뜻이다.

[12~14] (과학) Scott Freeman, 「생명과학」

1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삼투조절은 생명체가 체액의 농도를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 자신의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① 3문단을 보면 해수어는 해수보다 체액 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을 보면 표피 세포막이 반투과성 막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보면 삼투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이동함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을 보면 삼투조절로 인해 에너지가 소모되며 에너지 소모량은 체액 농도와 주위 환경과의 차이, 표피 세포막의 수분 투과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삼투조절은 생명체가 자신의 체액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절 작용을 말한다. ㄷ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 후 물을 마신 것은 땀으로 인해 체내 수분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여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ㄹ에서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셔서 체액의 농도가 낮아졌으므로 많은 양의 오줌을 통해 체내의 수분이 배출되는 것이다.

ㄱ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춘 것일 뿐 삼투조절과 관련이 없다. ㄴ은 체액의 농도가 아니라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14.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강에서 연어의 체액 농도는 담수보다 높기 때문에 연어의 체내로 수분이 유입될 것이다. 따라서 수분을 최대한 배출해야 하므로 굳이 입으로 물을 많이 들이마시려 할 필요가 없다.

② 바다에서는 아가미에 있는 염류세포의 이동 통로를 열어 염류를 많이 배출하지만 강에서는 염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로를 닫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③ 강물의 농도가 연어의 체액 농도보다 낮으므로 표피 세포막을 통해 수분이 체내로 유입될 것이다. ④ 강에서는 수분을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신장에서의 수분 재흡수 작용이 활발하지 않을 것이다. ⑤ 체내의 수분이 많이 배출되어야 하므로 오줌의 양이 많고 묽을 것이다.